

# 한국문학에 나타난 ‘독락(獨樂)’의 의미

-조선조 이언적·권호문·박인로를 중심으로

이진규\*

## || 차례 ||

1. 서론
2. ‘독락(獨樂)’의 연원
3. 조선조 유자(儒者)들의 ‘독락’
  - 3.1.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 3.2.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 3.3.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독락(獨樂)’이라는 말을 사용한 중국의 사마광을 비롯하여 한국의 이언적, 권호문, 박인로 등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사마광과 한국의 이언적, 권호문, 박인로 등의 ‘독락’에는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벗삼아 성정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홀로 즐기며 자득하고자 했던 모습이 표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민락’의 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과 인을 바탕으로 한 ‘여민락’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왕도정치의 실현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마광은 「독락원기」에, 이언적은 한시 ‘독락’과 당호(堂號)를 ‘독락당’으로, 권호문은 불편한 심사를 자신과 결부시켜 노래하면서 「독락팔곡」이라고 하였다. 박인로는 이언적 사후에 ‘독락당’을 찾아가 그가 ‘당시 흐시던 날’을 ‘다시곰 思想ᄃᆡ며 그를 추송하는 형식으로 가사 「독락당」을 지어 노래하였는데 이는 선가자로서보다는 유자로서의 신념이 작품에 형상화되었다. 이처럼 그들에게 사용되었던 ‘독락’이라는 말은 조선조 다른 유자들의 작품과 기록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estlee1212@naver.com.

주제어 : 독락(獨樂), 사마광(司馬光), 이언적(李彦迪), 독락당(獨樂堂), 독락팔곡(獨樂八曲), 박인로(朴仁老), 여민락(與民樂)

## 1. 서론

‘독락(獨樂)’이라는 말의 어의(語義)는 ‘홀로 즐긴다’는 뜻<sup>1)</sup>이다. 맹자(孟子, B.C.372-B.C.289)가 일찍이 왕도(王道)를 말하면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與民樂)’, ‘중중락(衆衆樂)’<sup>2)</sup>과 구분 지었다. 이후 중국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독락원기(獨樂園記)」와 몇몇 시에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여말선초 권근(權近, 1352-1409)의 「독락당기(獨樂堂記)」, 조선조 남수문(南秀文, 1408-1442)의 「독락정기(獨樂亭記)」,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당호(堂號) ‘독락당(獨樂堂)’과 시,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독락팔곡(獨樂八曲)」,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가사 「독락당(獨樂堂)」,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독락재기(獨樂齋記)」를 비롯하여 이승소(李承召, 1422-1484), 장현광(張顯光, 1554-1637) 등의 글에 나타난다.

‘독락’은 맹자와 사마광의 정치·철학사상, 나아가 자기수양과 실천공행을

---

1) “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孟子』 「梁惠王·上」.

2) 맹자는 齊宣王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홀로 즐김과 많은 사람이 함께 즐김 중에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獨樂樂, 與人樂樂, 孰樂 (중락) 此無他, 與民同樂也. 今王與百姓同樂, 則王矣)”라는 문답을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與民同樂의 왕도 정치론을 펼치며 설명하는 말이다. 『孟子』 「梁惠王·下」. 魏伯珪(1727-1798)는 이 구절에 대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하고, 백성과 함께 즐거워함이 바로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왕은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 살 곳을 얻어서 즐겁게 살도록 할 뿐이다. 왕자가 천하의 백성들이 다 즐긴 다음에 즐긴다면, 그 즐거움은 무궁할 것이다.(與民同樂 與民同樂 卽利天下也. 王者之道 只是使民得其所而樂而已. 王者後天下之樂而樂則樂亦無窮矣.)”라고 논하고 있다. 魏伯珪, 「讀書筭義·孟子」 『存齋集』 卷9, 1-14면.(『韓國文集叢刊』 243, 182-188면) ‘韓國文集叢刊’을 이하는 ‘叢刊’으로 칭함.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조 유자(儒者)들의 실천도학과도 밀접해 보인다.

지금까지 극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독락’의 의미가 제기된 바 있다. 최재남은 권호문의 「독락팔곡」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인 공락(共樂)의 대립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 즐거움은 벼슬살이를 전제로 한 공락의 정서를 지닌<sup>3)</sup> 뜻이라고 하였다. 김병국도 「독락팔곡」을 언급하며 퇴계(退溪)의 관유온유(寬裕溫柔)를 계승한 것으로 환로(宦路)에 대한 마음을 잊고 학문연구를 통해 인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자득(自得)을 얻어 그 뜻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sup>4)</sup>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권호문의 특정작품에만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적 요소에 치중된 언급들이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중국 사마광과 한국의 유자들에게 사용된 ‘독락’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이언적, 권호문, 박인로 등의 ‘독락’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 2. ‘독락(獨樂)’의 연원

중국 북송대의 사마광은 정계를 떠나<sup>5)</sup> 낙양에 ‘독락원’을 조성하고 홀로 즐긴다는 뜻인 ‘독락’이라는 말을 「독락원기」에 사용하고 있다.<sup>6)</sup>

---

3) 최재남, 「〈독락팔곡〉과 〈한거십팔곡〉의 정서적 연관」, 『한국문학논총』 16집, 한국문학회, 1995, 331-339면.

4) 김병국, 「松巖 權好文의 〈독락팔곡(獨樂八曲)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68면.

5) 당시 북송의 정계는 정치경제 등 비효율적인 행정과 군정에 이르기까지 모순과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기에 정계는 변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王安石(1021-1086), 蔡京(1047-1126) 등이 주축이 된 신법당파와 사마광, 韓琦(1008-1075) 등이 주축이 된 구법당파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사마광이 물러나게 되었다.

6) 사마광은 ‘독락원’을 짓고 ‘독락’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14년(1071-1085) 동안 養生을 하고 名士들과 교류하며 저술활동을 하였다. 武內義雄 著·李東熙 譯, 『中國思想史』, 여강출판사, 1992, 199-202면 참고.

맹자가 말하기를, ‘홀로 즐거움을 즐기는 것보다 남과 함께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낫고, 적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즐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이는 왕공·대인들이 즐기는 즐거움이지 빈천한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 하고 잠을 자더라도,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고, 안회는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로도 즐거움을 찾아 끝내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는 성현들이나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지,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백새가 숲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은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고, 두더지가 황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작은 배를 채우는데 불과한 것처럼, 사람은 각기 타고난 분수에 맞게 안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 우수 사마광이 즐기는 것이다. 내가 낙양에 시작한지 5년, 동산을 만들고, 그 곳에 당을 지어 책을 모으기 5천권, 그 당을 독서당이라 이름 지었다.

내가 평소에 책을 읽는데, 위로는 성인을 스승으로 삼고, 아래로는 많은 어진 이를 벗으로 삼으며, 인의를 근본으로 살펴보고, 예악의 실마리를 찾는다. (중략) 하늘과 땅 사이 그 어디에 이만한 즐거움이 또 있어 이런 즐거움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책 읽는 즐거움과 동산에 노니는 즐거움을 더하여 독락이라 하노라.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여, “나는 이렇게 들었다. ‘군자는 즐기는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고, 지금 그대는 다만 즐거움을 취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니, 어찌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남과 같이 즐기려 해도 남들이 취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강제로 권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곧 재배하고 드릴 것입니다. 어찌 감히 혼자 갖고자 하겠습니까.”<sup>7)</sup>

이 글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 곧 자신을 우수(迂叟)라고 자호하면서 당대의 세태가 왕공·대인들이나 즐겨워하는 세상이지 빈천한 사람들과 자신 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특권층과 일부만 ‘독락’하는 세태를 꼬집고 있다. 집정자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직분에 따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사욕만 부리는 행태를 백새와 두더지에 비유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

---

7) 司馬光 撰·李之亮 箋註, 「獨樂園記」 『司馬溫公集編年箋註』 5, 204면.(원문생략) 이하는 ‘書名’만 칭함.

다.

낙양에 낙향하였을 때 읊은 시에는 벼슬살이 30여 년간 미미한 업적만을 남겼지만 군주에 대한 충성스러움만은 변함없었고,<sup>8)</sup> 초여름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황제를 향한 충정이 일편단심이었다며<sup>9)</sup> 정계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억울해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花庵獨坐(화암독좌)」<sup>10)</sup>

荒園才一畝	거친 뜰이 겨우 한 이랑이라지만
意足以為多	뜻에 흡족하니 많게도 여겨지네.
雖不居丘壑	사는 곳이 깊은 골짜기는 아니지만
嘗如隱薜蘿	은자가 사는 집에 늘 사는 것 같네.
忘機林鳥下	세상일 잊고 나니 숲 속 새가 내려앉고
極目塞鴻過	저 멀리에는 기러기 변방으로 날아가네.
為問市朝客	市朝客에게 묻노니
紅塵深幾何	세속의 먼지 그 얼마나 쌓였냐고.

세상일을 잊으니 새들도 내려와 벗삼으려한다며 전원에서의 삶에 만족해하는 모습이 표면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세속의 먼지가 얼마나 쌓였냐”고 시조객(市朝客)에게 묻는 구절에는 정계(政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타나 있다. 시조객은 정치적 대립으로 자신이 물러난 자리에 집정하고 있던 왕안석을 비롯한 신법당파(新法黨派)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락원에서의 전원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로만 쌓여 심신이 쇠약해졌다고 토로한 시들<sup>11)</sup>과 관련지어보면 사마광은 홀로 즐기는 삶을 이루지 못했음

8) “三十餘年西復東 勞生薄宦等飛蓬 所存舊業惟清白 不負明君有樸忠 早避喧煩真得策 未逢危辱早收功 太平觸處農桑滿 贏取閭閻鶴髮翁.” 「初到洛中書懷」. 『司馬溫公集編年箋註』 2, 297면.

9) “사월 맑고 화창한데 비가 잠깐 개니, 남산이 문을 바로 대한 듯 분명하네. 게다가 바람 따라 날리는 벼들개지는 없고, 오직 해바라기만 해를 향해 기울이네.(四月清和 雨乍晴 南山當戶轉分明 更無柳絮隨風起 惟有葵花向日傾)” 「居洛初夏作」 『司馬溫公集編年箋註』 2, 336면.

10) 『司馬溫公集編年箋註』 2, 309면.

을 알 수 있다. 또한 “문(文)의 목적이 오로지 뜻을 통하는데 있어서 화려한 수식이나 웅변과 같은 기교는 중요하지 않고,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sup>12)</sup>는 의재언외(意在言外)를 중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사마광이 ‘독락’이라는 말을 쓴 데에는 나타내고자했던 뜻이 있다는 것이다.

사마광 당대는 중앙집권과 문화발전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경제를 선도하였다. 특히 수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공업은 도시를 급격하게 번성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귀족과 도시인들은 사치와 향락이 극심했다.<sup>13)</sup> 반면에 일반 서민과 농민들의 삶은 경제적 수탈과 도적까지 횡행하는 가운데 더욱 피폐해졌다.<sup>14)</sup>

이에 대하여 사마광은 사농공상이 각자 직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景福殿東廂詩三十首·賜書(경복전동상시 30수·사서)」<sup>15)</sup>

士本學先王	선비는 선왕의 덕을 배우는데 근본하고
所求誼與仁	마땅함과 어짐을 추구해야 하는 법.
農當服稼穡	농부는 곡식 심고 거두는 일을 맡아서
昏作畎畝勤	농사일에 부지런해야 하네.
百工備用器	직공은 쓰임새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지
不治刺綉文	무늬 수놓은 일에는 상관치 말아야 하네.
萬商遷有無	상인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유통하되
不通珠翠珍	비취같은 진주는 유통하지 말아야 하네.
四業旣交修	네 가지 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坐令風化純	풍속이 저절로 순화될 것이네.

11) 「送祖擇之」, 「宿南園」 등을 들 수 있다. 오현필, 「司馬光의 洛陽 隱逸時期 詩 研究」, 『中國學論叢』 41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2013, 85-88면.

12) “今之所謂文字古之辭也 孔子曰辭達而已 明其足以通意斯止矣 無事於華藻宏辯也.”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 718-719면.

13) 松丸道雄 外著·조성을 譯, 『중국사개설』, 도서출판 한울, 1991, 242-256면.

14) 김학주, 『中國文學史』, 新雅社, 1993, 339-400면.

15)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 69-70면.

人和衣食豐  
天應殊祥臻

인심이 화합하고 의식이 풍부해지면  
하늘은 응당 복을 이르게 할 것이라네.

선비(士)는 선왕의 법을 근본삼아 인의를 지향하고, 농부는 농사에 성실해야하며, 공인은 실용가치를 우선하고, 상인은 고가의 상품보다는 백성들의 생필품을 유통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田家(농부의 집)」<sup>16)</sup>

未塞豪人奪	호족의 수탈도 막지 못하는데
何言公賦收	收稅에 대해 말한들 무엇하리.
皇心雖惻隱	황제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있겠지만
蓬戶或焦愁	떠돌며 사는 빈민들은 흑시나 하며 애만 태우네.
爲吏空多綠	벼슬아치들은 하는 일 없어도 녹봉만 많거늘
無人能此憂	이런 근심 하는 이 없네.
知君坐公府	조정에 계시는 군주님은 알고계실 것이니
佗日富民侯	훗날 백성들을 넉넉하게 해주시겠지.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관리들을 비판하면서 백성들을 측은히 여겨 구제해주기를 군주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마광은 중앙과 도시를 위주로 한 비효율적인 관제와 군제 등 지나친 제도개혁으로 인하여 드러난 운영상의 모순과 문제<sup>17)</sup>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

16) 司馬光, 앞의 책, 89면.

17) 군대에는 쓸데없는 인원이 너무 많은 가운데 중앙의 규칙 없는 명령으로 부대의 이동이 너무 잦았고, 군권유지에 들어가는 지나친 賞與는 폐단을 가져왔다. 행정면에서는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너무 많은 進士를 내다보니 쓸데없는 관리가 많았고 이에 따른 봉록과 賞賜도 지나치게 많았다. 이 때문에 군은 수에 비해 전투능력은 형편없었고 행정은 효율이 없었다. 김학주, 앞의 책, 339-400면 참고.

「將軍行(장군행)」<sup>18)</sup>

赤光滿面脣激朱  
虬鬚虎額三十餘  
腰垂金印結紫綬  
諸將不敢過庭除  
羽林精卒二十萬  
注聽鈺鼓觀麾旗  
肥牛白頭酒萬石  
爛漫一日供歡娛  
自言不喜讀兵法  
智略何必求孫吳  
賀蘭山前烽火滿  
誰令小虜驕慢延須臾

자주 빛이 가득한 얼굴에 붉디붉은 입술  
蛟龍같은 수염에 범 이마를 한 삼십여 세.  
금빛 인장 드리우고 자주 빛 인끈 묶은 채  
모든 장군들 감히 전장으로 나서려 않네.  
금위군 정예 병사 이십만  
징과 북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군기만 바라보네.  
살찐 소 백두에 술 만석  
하루 종일 어지럽게 즐기는데 제공되네.  
스스로 병법 익히기는 좋아하지 않고  
첩略을 하필 孫子와 吳起에게서만 구할 필요가 있  
느냐고들 말하네.  
賀蘭山 앞에는 봉화가 가득한데도  
누가 오랑캐에게 교만하도록 불러들였는지.

병법과 지략은 배우려하지 않고 국고를 낭비하면서 향락만 탐닉하는 장군과 나태한 병사들의 무기력하고 무사안일한 군정의 병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나타나 있다.

사마광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집정자(왕안석)를 비롯한 신법당과 대부분이 관료의 집단화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나아가 이는 군주가 인재등용에 있어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인물의 능부(能否)를 헤아려 알맞은 직에 임용하고, 그 수행의 업적을 살펴 진퇴시켰다면 수공무위(殊功無爲)하여도 치화(治化)가 자연히 이루어졌을 것<sup>19)</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비가 독서하는 것은 어찌 오로지 녹봉의 이익을 위한 따름인가? 지위 얻기

18) 司馬光, 앞의 책, 66면.

19) “王者之職 在於量材任人賞功罰罪而已 苟能謹擇公卿牧伯而屬任 則其餘不待擇而精矣 謹察公卿牧伯之賢愚善惡 而進退誅賞 則其餘不待進退誅賞而治矣 然則王者所擇之人不爲多 所察之事不爲繁.” 이영덕, 「司馬光의 社會觀과 그 背景」, 『史林』 2집, 수선사학회, 1977, 388면 인용.

를 구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고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선비를 구하는 까닭이 어찌 印綬를 헛되이 사용하여 곡식과 비단을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겠는가? 또한 그 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므로, 모두 사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백성을 위주로 하는 데 그칠 뿐이다.<sup>20)</sup>

선비(士)가 관리(官吏)의 직책에 나아갔을 때의 역할을 논한 글이다. 선비는 학습의 목적을 위민(爲民)에 두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서도 사적(私的) 이익에서 벗어나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사마광은 왕공·대인들이나 즐거워하는 독락의 세상이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현실을 빗대어 ‘독락’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마광의 ‘독락’에는 그냥 혼자만이 즐기겠다는 의미가 아닌 군주와 백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된 것이다.

### 3. 조선조 유자(儒者)들의 ‘독락’

한국 유자들의 ‘독락’에 대한 언급은 여말선초의 권근, 조선조의 남수문, 이승소, 이언적, 권호문, 장현광, 박인로, 박지원 등의 글<sup>21)</sup>에 나타난다.

양촌(陽村) 권근의 「독락당기」<sup>22)</sup>에는 중국의 인물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특히 사마광이 자신의 정원을 ‘독락’이라고 이름한 것은 “널리 은혜를 베풀고

20) “士之讀書者 其專爲祿利而已哉. 求得位而行其道 以利民也. 國家所以求士者 其徒用印綬 粟帛富寵其人哉. 亦欲得其道以利民也. 故上之所以求下 下之所以求上 皆非顧其私 主於民而矣.” 吳憲必,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 『中國學論叢』 39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2013, 111면 풀이인용.

21) 權近, 南秀文, 朴趾源 등은 지인들의 請을 받고 그들의 ‘독락’과 관련하여 기술하였고, 李承召와 張顯光 등은 詩文 속에 ‘독락’을 언급하였다.

22) 丹陽 禹玄寶(1333-1400)가 관직에서 물러나 閑居하는 堂에 ‘독락’이라는 扁額을 걸고 記文을 지어달라는 부탁으로 지은 글이다. 權近, 『陽村集』 권13, 9-11면.(『叢刊』 7, 146-147면)

대중을 구제하는”<sup>23)</sup>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암(燕巖) 박지원의 「독락재기」 등<sup>24)</sup>에도 ‘독락’은 ‘중락(衆樂)’<sup>25)</sup>인 ‘여민락’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남수문의 「독락정기」 일부이다.

“(전락) 지금 세상의 사대부를 보면 田園이 있어 족히 자유롭게 지낼 만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 영리의 굴레에 얽매어 동으로 서로 치달리며 쉼 새가 없고, 종신토록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자까지 있으며, 간혹 돌아간 자가 있어도 주관을 들고 錢穀이나 계산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너무도 그 생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임후(林穆)는 벼슬이 그의 덕에 차지 않았으며, 나이도 너무 늙지 않았는데, 능히 벼슬을 사면하고 세속의累了 벗어나서 산수의 사이에 소요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독락’이라는 편액이 역시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 정자는 곧장 涑水의 ‘獨樂園’과 더불어 영원히 세상에 아름다움을 짝할 것이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司馬溫公은 천하의 명망을 짊어졌기 때문에 마침내 洛陽에서 한가히 노닐지를 못하였는데, 지금 임후도 역시 명망을 짊어졌으니 과연 능히 오래도록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sup>26)</sup>

23) “博施濟衆” 權近, 앞의 책, 같은 면.

24) 三灘 李承召의 ‘독락’은 그가 1465년(세조 11) 충청도 관찰사 재직 때 관내를 순행하면서 지은 시 「獨樂亭」(『三灘集』 권4, 『叢刊』 11, 416면 참고), 「鎮川」(『三灘集』 권4, 『叢刊』 11, 407면 참고)과 「奉和御製狎鷗亭詩并序」(『三灘集』 권6, 『叢刊』 11, 432면 참고) 등에 언급되어 있다. 旅軒 張顯光의 ‘독락’은 「觀物賦」(『旅軒集』 권1, 『叢刊』 60, 15면 참고), 「萬活堂賦」(『旅軒集』 권1, 『叢刊』 60, 12면 참고) 등에 언급되어 있는데, 군주·정치관(최병덕, 「旅軒 張顯光의 군주론」, 『한국학논집』 42, 계명대한국학연구원, 2011, 178-203면 참조; 박학래, 「旅軒 張顯光의 시대인식과 經世論」, 『유교사상문화연구』 22, 한국유교학회, 2005, 223-229면 참조)면에서 회재와 사마광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25) “以天下樂之有餘而獨樂於己不足 (중락) 吾大其志而爲之記如此 欲以益其專而衆其獨 此吾所以廣其樂于天下也.” 朴趾源, 『燕巖集』 권1.(『叢刊』 252, 22-23면)

26) “(전락) 余竊觀今世士大夫 雖有田園可以自適者 然皆爲名羈所繫 馳東驚西無已時 至有終身不歸其鄉者 間有歸者 亦不過執牙籌計錢穀 得非勞苦其生者乎 惟侯位不滿德 年未至暮 乃能謝榮宦脫世累 自逍遙於山水 聞者如此 獨樂之扁不亦宜乎 之亭也直與涑水之園 麗美於不朽也無疑矣 然司馬公負天下之望 故竟不得優游洛中 今侯亦負一時之望則得以久擅斯樂乎 未也.” 南秀文, 『敬齋遺稿』 권1, 12-14면.(『叢刊』 9, 46면)

이 글에서 사마광이 ‘독락원’에서의 생활을 즐기지 못한 것은 세상의 명망을 잃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林侯(林穆, 1371-1448)도 편액에 ‘독락’이라고는 하였으나, 그 또한 세상의 명망을 잃어진 인물이기에 사마광처럼 홀로 즐거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유자들이 언급한 ‘독락’에도 ‘중중락’, ‘여민락’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다음의 회재 이언적, 송암 권호문, 노계 박인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3.1. 회재 이언적

회재 이언적은 부친의 정자를 신축하여 당호를 ‘독락당’이라고 이름 지었다. ‘독락당’은 훈구 세력인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파직되면서부터<sup>27)</sup> 재등용되기까지 학문정진과 산수자연을 벗삼아 독락하는 삶을 살고자했던 공간이다.

「江上贈同遊諸君(강가에서 함께 노니는 제군들에게 주다)」, 2수 중 첫째 수 <sup>28)</sup>	
山爲屏障草爲筵	산은 병풍 되어 주고 풀은 자리 되어주니
滿目平郊靄景鮮	온 눈에 끝없이 뻗은 들에 갠 날씨가 싱그럽네.
試問塵間揮汗走	먼지 속 땀 흘리며 분주한 사람들에게 묻노니
何如把酒坐江煙	술잔 들고 안개 강에 앉아 즐길기가 어떻겠는가.

이 시는 분주했던 세속을 떠나 끝없이 뻗은 비개인 들에 산을 병풍 삼고 풀을 자리 삼아 자연과 동화된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세속의 온갖 찌꺼기를 씻

27) 이언적이 41세 되던 중종 26년(1531)에 김안로의 기용을 반대하여 성균관 사예로 좌천된 후 탄핵으로 파직 되었다. 다음 해(42세)인 1532년 11월에 자옥산에 독락당을 지었다. (“十年辛卯 先生四十一歲 正月, 有直薇垣一絕 (중략) 左遷爲成均館司藝 尋被劾罷歸田里. 十一年壬辰 先生四十二歲 築獨樂堂于紫玉山.”) 李彥迪, 『晦齋先生年譜』, 1-20면 참고.(『叢刊』 24, 487-496면 참고)

28) 李彥迪, 『晦齋集』 卷2, 3-4면.(『叢刊』 24, 363면)

어내고 수양을 통해서 더욱 순수한 마음의 경지를 얻고자<sup>29)</sup>하였다. 그러나 자연과 동화되지 못하고 고독감을 느끼는 모습에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다.

「獨樂(홀로 즐김)」<sup>30)</sup>

離群誰與共吟壇	벗들이 떠났으니 누구와 함께 시를 읊나
巖鳥溪漁慣我顏	산새와 시내의 물고기만 내 낯을 안다네.
欲識箇中奇絕處	이중에서 특별히 더 아름다운 정경을 찾으니
子規聲裏月窺山	두견새 울음 속에 달이 솟아오를 때라네.

지인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찾아왔던 지인들이 떠난 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황혼 무렵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연과 동화된 모습 속에 두견새와 물고기만이 내 낯을 안다는 표현은 고독감이 배어있다.

「山中卽事(산 속에서 즉흥적으로 읊다)」, 3수 중 첫째 수<sup>31)</sup>

雨後山中石澗喧	비온 뒤 산 속 냇물소리 요란한데
沈吟竟日獨憑軒	난간에 홀로 기대 종일 시를 읊조리네.
平生最厭紛囂地	평소 제일 싫어한 게 시끄러운 곳이지만
唯此溪聲耳不煩	시냇물 소리만은 귀에 거슬리지 않네.

비온 뒤의 맑은 경치를 묘사하면서 세상의 시끄럽고 번잡한 소리와 거슬리

29) 「林居十五詠」중 「存養(성품을 기르) : 산비 소슬하게 내려 절로 꿈이 깨니, 홀연히 창밖에 멧닭 소리 들리네. 인간세상 온갖 욕심 모두 사라지고, 단지 한 점 마음만이 더 밝아지네.(山雨簫簫夢自醒 忽聞窓外野鷄聲 人間萬慮都消盡 只有靈源一點明)」과 「病起登詠歸亭(병을 앓고 일어나 영귀정에 오르다) : 비 개인 들 경치 더욱 싱그럽고, 시야에 가득한 구름 산이 한가한 이 위로하네. 인간세상 싫고 괴롭고 시끄러운 시비소리도 많아, 옛 은거하던 시내와 산 자주 꿈꾸었지.(雨歇平郊霽景新 雲山滿目慰閑人 人間苦厭多喧競 舊隱溪山入夢頻)」을 들 수 있다. 李彥迪, 『晦齋集』 卷2, 10면.(『叢刊』 24, 366면)

30) 이 시는 '독락당'을 배경으로 읊은 「임거십오영」 가운데 하나이다. 李彥迪, 『晦齋集』 卷2, 8-10면.(『叢刊』 24, 365-366면)

31) 李彥迪, 『晦齋集』 卷1, 8면.(『叢刊』 24, 355면)

지 않는 자연의 소리를 대비하여 유자로서 실천궁행하고자했던 그를 괴롭게 했던 시비소리에 대한 심경을 술회하고 있다.

이언적이 활동하던 16세기 전반기는 훈구파 집권세력에 의한 토지점병이 자행되고, 국가는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시기였다. 특히 병농(兵農) 일치의 원칙아래 조직되었던 군사제도는 무너졌고, 일반 병역의무자로부터 병역세(군포)를 징수 받고 그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병사들의 고통은 더욱 심했다. 집권층의 사치와 부패는 극도로 만연하였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저항이 포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자<sup>32)</sup> 양심적인 학자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언적 또한 이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유자로서의 실천적 삶을 지향하였기에 그에게 시비하는 소리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이언적은 유학의 근본정신인 인을 되찾고 실현방법을 위해 만년 유배<sup>33)</sup>에서 유교의 여러 경전과 송대(宋代) 도학자들의 설을 궁구한데서<sup>34)</sup> 알 수 있다. 이는 치세(治世)의 근본대책으로 군주를 성학(聖學)의 세계로 이끌어 왕정을 바로 잡아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등용의 신중함 등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가 49세 때 올린 상소문(「一綱十目疏」)에는 임금의 ‘마음씀(人主之心術)’을 근본강령으로 규정하고 십목(十目)<sup>35)</sup>을 제시하여 군주사회의 통치원

---

32) 권용옥, 「晦齋 李彥迪과 良洞마을」, 『儒學研究』 26, 충남대유학연구소, 2012, 6면.

33) 이조·예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1545년(명종 즉위년)에 좌찬성이 되었다. 을사사화 때 推官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7년(명종2) 윤원형 등이 조작한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강제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34) 1550년(명종5)에 평안도 江界 謫所에서 사서오경에서부터 인에 관한 章句를 뽑아 모으고 鄭顥·程頤·朱熹·張載·眞德秀 등 宋儒의 仁에 대한 주석을 모으고 학설을 종합 고찰하여 4권 2책의 類別로 편집하여 『求仁錄』 등을 저술하였다.

35) 십목(十目)은 ‘가정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嚴家政)’, ‘나라의 근본을 길러야 한다(養國本)’, ‘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正朝廷)’, ‘인재를 쓰고 버리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慎用舍)’, ‘천도에 순응해야 한다(順天道)’, ‘인심을 바로잡아야 한다(正人心)’, ‘언론의 길을 넓혀야 한다(廣言路)’, ‘사치와 욕망을 경계하여야 한다(戒侈欲)’,

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正朝廷)’<sup>36</sup>, ‘인재를 쓰고 버리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慎用舍)’<sup>37</sup>, ‘천도에 순응해야 한다(順天道)’, ‘사치와 욕망을 경계하여야 한다(戒侈欲)’<sup>38</sup>, ‘군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修軍政)’<sup>39</sup> 등은 사마광이 왕도정치를 실현하기를 강조한 것과 닮아있다.

하늘의 도에 순응하여 인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순천도(順天道)’는 군주가 자기의 걱정을 걱정으로 여기지 말고 천하의 걱정을 걱정으로 여기며,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고 천하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하늘의 도에 맞는 정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이언적이 생각했던 여민락의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독락’이라고 했던 것이다.

바라옵건대 인군의 덕은 지극한 성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誠의 도리는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데 하물며 사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략) 그러한 즉 위로는 하늘에 이르는 정성이 없어서 재변이 거듭 닥치고 아래로는 사람을 감화함이 없어 간사하고 거짓됨이 더욱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효과가 막히고 잘 나타나지 않아서 풍교가 무너지고 사라져 구제할 수 없습니다. 생민이 날로 곤궁해지고 선비의 기절이 날로 사라져 가고 풍속이 날로 무너져서 심지어 하늘을 거스르고 倫常을 멸하는 變이 자주 일어나 泯滅되고 危亂에 이르게 되었으니 성상의 다스림 아래 통곡할 만한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지경에

---

‘군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修軍政)’, ‘기미를 잘 살펴야 한다(審機微)’이다. 李彥迪, 「一綱十目疏」 『晦齋集』 卷7, 1-29면.(『叢刊』 24, 417-431면)

- 36) 군주의 마음을 바로 잡아 조정을 바로 잡고, 조정을 바로 잡아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 사방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김안로가 왕의 은총과 대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신의 접근을 막고 정권을 전횡한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37) 국가의 安危는 인재의 用不用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賢能함과 간사함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등용과 퇴출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다.
- 38) 군주가 사치하게 되면 국가의 재용을 낭비하여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질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한 말이다.
- 39) 나라를 방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장수의 선임, 사졸의 훈련, 군수품의 비축, 병기의 관리, 城堡修築 등을 강조한 말이다.

이른 까닭이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후략)<sup>40</sup>

이 글에는 시국을 염려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안정되니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국가를 보전할 수 없기에 인명을 중시하여 형벌을 줄이고 부세를 경감하여 백성을 도탄에서 구제해야 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백성과 나라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sup>41</sup>

다음 시에는 백성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처로워 하는 심정이 나타난다.

「次李進士定之韻(진사 이정지의 시에 차운하다)」<sup>42</sup>

今春不雨大無麥	올봄에는 비도 없어 보리농사 흉작이고
又悶西疇少插秧	西疇에 모내기 한 곳 적어 또 걱정이네.
自愧空疏忝侍從	능력 없는 몸이 시종 직책 맡아 부끄럽네
凶年無術撫流亡	흉년에 流亡民 구제할 재주가 없으니.

오랜 가뭄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유망민(流亡民)으로 전락하는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자탄의 심경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조정으로부터 유리(流離)된 민심과 그들의 고통을 선정으로 구휼<sup>43</sup>

40) “伏以人君之德 莫大於至誠. 誠之道可以動天地感鬼神而況於人乎. 古之聖王 (중략) 然而上無以格天而災沴荐臻 下無以感人而奸偽日滋. 治效蹇泯而不著 風教頽剝而莫救. 生民日以困窮 土節日以消沮 風俗日以壞敗 至有逆天滅倫之變相繼而起 民彝泯絕 危亂將至 聖治之下 有可痛哭者非一. 其所以致此者 豈無其由耶. (후략)” 1542년 가을, 이 언적(52세)이 대사헌 재직 때 올린 상소이다. 李彦迪, 「司憲府劄字」, 『晦齋集』 권 13, 11-13면.(『文集叢刊』 24, 478-479면)

41) 장도규, 『晦齋李彦迪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9, 154-155면.

42) 李彦迪, 『晦齋集』 卷3, 4면.(『叢刊』 24, 371면)

43) 「再和眉叟韻(재차 미수의 시에 화운하다) : 군자가 명이라 함은 부끄러운 일, 어찌 때가 때 아님을 논하겠나. 마음 가면 모두가 지극한 樂인 것을, 공명이 손에 들면 언제나 슬픔만 깊네. 세상의 도가 진작부터 경박하였다지만, 백성의 삶은 오래전에 거덜 났네. 훗날 죽어 초목이 된다면, 누군들 성명이나 알아줄손가(君子羞談命 寧論時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빗대어 당호를 ‘독락당’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 3.2. 송암 권호문

송암 권호문의 ‘독락’은 경기체가<sup>44)</sup> 「독락팔곡(獨樂八曲)」에 사용되었다. 「독락팔곡」은 안축(安軸, 1282~1348)의 「죽계별곡」·「관동별곡」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향락이 아니고,<sup>45)</sup> 다수가 참여하여 짓고 집단적으로 향유한 「한림별곡(翰林別曲)」같은 풍류도 아니다.<sup>46)</sup>

권호문은 「독락팔곡」 <1곡><sup>47)</sup>에 태평스럽고 성스러운 시대에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는 선비가 전원생활을 즐기며 빈천을 걱정하지 않고 홀로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2곡><sup>48)</sup>에서는 명리를 추구하는 세속과는 다른 분수에 맞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즐기는 세상을 노래하고 있다.

- 
- 不時 關心皆至樂 入手或深悲 世道曾澆薄 民生久渙離 他年同草木 誰取姓名知) 등 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 李彦迪, 『晦齋集』 卷3, 13면.(『叢刊』 24, 376면)
- 44) 고려의 경기체가는 주로 전절 4행, 후절 2행의 聯章體(疊聯)로 제1-3행은 3음보, 제5행은 4음보 또는 2음보이고 제4행과 제6행은 ‘-景기엇더하니잇고’의 형태이나 우리말로의 변형이 있는(이임수, 『한국시가문학사』, 보고서, 2014, 212면) 반면, 「독락팔곡」은 4음보 중심에 각 연이 전대절과 후소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景기엇더하니잇고”는 각 연의 끝에 1회씩만 쓰여 있다.
- 45)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출판부, 1986, 53면.
- 46) 김기영(「松巖 權好文의 <獨樂八曲> 研究」, 『어문연구』 25권, 어문연구학회, 1994, 136-138면)은 이들과의 차이가 풍류라는데 있다고는 했지만, <6곡>의 내용을 근거로 人爵에의 강한 의지와 치국평천하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 47) “太平聖代 田野逸民 再唱 耕雲麓 釣烟江이 이맞고 일이업다. 窮通이 在天호니 貧賤을 시름호라. 玉堂金馬는 내의願이 아니로다. 泉石이 壽域이오 草屋이 春臺라. 於斯臥 於斯臥 俯仰宇宙 流觀品物호야, 居居然 浩浩然 開襟獨酌 岸幘長嘯 景 기엇다 호니잇고.” 權好文, 『松巖續集』 권6, 1면.(『叢刊』 41, 289면)
- 48) “草屋三間 容膝裏 昂昂 一閒人 再唱 琴書를 벗을 삼고 松竹으로 울을호니 脩脩生事와 淡淡 襟懷에 塵念이 어디나리. 時時에 落照趨淸 蘆花岸紅호고, 殘烟帶風 楊柳飛호거든, 一竿竹 빗기안고 忘機伴鷗 景 기엇다 호니잇고.” <2곡>

이는 「독락팔곡」을 지은 이유를 말한 「독락팔곡병서(獨樂八曲并序)」를 통하여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詞 가운데 意가 있고 意 가운데 指가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 感發하고 興嘆이 있다. (중략) 古人이 이르기를, “노래는 시름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독락팔곡) 또한 나의 不平에서 나왔다. 朱文公이 말하기를, “그 뜻한 바를 읊조리고 노래하여 성정을 기른다.” 하였으니 지극하다. 이 말이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이 노래가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노래하여 뜻을 펴고 성정을 기른다. 아! 소나무 창가의 몇 곡 노래가 어찌 風朝月夕의 動蕩하는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49)

말 가운데 뜻이 있고 뜻 가운데 지(指), 곧 꼬집는 것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이것을 듣고 감동하기도 하고 탄성을 내기도 한다. 고인이 노래는 시름에서 나온다고 말했듯 나의 노래(「독락팔곡」)도 시름, 곧 불평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평한 심사를 꼬집어내어 노래한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3곡> 이하는 이 불평한 심사가 구체적(指)으로 드러나 있다.

士何事乎 尙志而已 再唱  
科名損志호고 利達害德이라.  
모르미 黃券中 聖賢을 피압고,  
言語精神 日夜에 願養호야,  
一身이 正호면 어딴리로 못가리오.  
俯仰恢恢호고 往來平平호니,  
갈길를 알오 立志를 아니호랴.  
壁立萬仞 磊落不變호야,  
嘍嘍然 尙友千古 景 괴엇다 호니잇고. <3곡>

---

49) “詞中有意 意中有指 可使聞者感發而興嘆也. (중략) 古人云歌多出於憂思 此亦發於余心之不平 而朱文公曰詠歌其所志 以養性情 至哉斯言 心之不平而有是歌. 歌之暢志而養其性. 噫. 松窓數般之曲 豈無少補於風朝月夕之動蕩精神乎. 余是以戲有是說焉.”  
權好文, 같은 책, 같은 면.

선비가 해야 할 일(士何事)로 ‘상지(尙志)-이양(頤養)-입지(立志)-상우(尙友)’임을 노래하고 있다. 그 일은 뜻을 높이 가지고(尙志)<sup>50)</sup>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수양하면서(頤養)<sup>51)</sup> 변함없는 곧은 뜻으로(立志)<sup>52)</sup> 옛 성현의 바른 법을 본받아야 한다((尙友)<sup>53)</sup>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인의를 바탕으로 하여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정사를 행해야 한다는 맹자의 왕도정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入山恐不深 入林恐不密 觀閒之野 寂寞之濱에 卜居를 定호니  
野服黃冠이 魚鳥外 버디업다.  
芳郊에 雨晴하고 萬樹에 花落後에  
靑藜杖 뷔집고 十里溪頭에 閒往閒來 호는쁘든  
曾點氏 浴沂風雩와 程明道 傍花隨柳도 이러턴가 엇다턴가.  
暖日光風이 불써니 불거니 興滿前호니,  
悠然胸次 | 與天地萬物 上下同流 景 기엇다 호니잇고. <4곡>

집은 范萊蕪의 蓬蒿 | 오 길은 蔣元卿의 花竹이로다.  
百年浮生 이러타 엇다호리.  
진실로 隱居求志호고 長往不返호면  
軒冕이 泥塗 | 오 鼎鐘이 塵土 | 라.  
千磨霜刃인들 이쁘들 굶츠리랴.  
韓昌黎의 三上書는 내의쁘데 區區호고,  
杜子美 三大賦 | 내동내 行道호랴.  
두어라 彼以爵 我以義 不願人之文繡호야  
世間萬事 都付天命 景 기엇다 호니잇고. <5곡>

고인들이 ‘이양(頤養,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수양함)’에 충실했던 모습과

50) “王子塾問曰 士何事 孟子曰 尙志 曰何謂 尙志 曰仁義而已矣.” 『孟子』 「盡心·上」.

51) “所以平和府藏 頤養精神 致之無疆.” 『後漢書』 「馬融傳」.

52) “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孟子』 「萬章·下」.

53) “又尙論古之人 頌其時讀其書 不知其人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 『孟子』 「萬章·下」.

천지만물이 조화로운 광경을 통하여(<4곡>)<sup>54</sup> 선비는 군주를 잘 보필하고 군주는 위민에 힘쓰는 인물을 등용하여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에 대한 바람(<5곡>)을 노래하고 있다.

君門 深九重 ㅎ고 草澤 隔萬里 ㅎ니,  
十載心事를 어이ㅎ야 上達ㅎ료.  
數封奇策이 草하얀디 오래거다.  
致君澤民은 내의才分 아니던가.  
窮經學道를 뜯두고 이리ㅎ랴.  
출하리 藏修丘壑 遯世無悶ㅎ야  
날조춘 번님네 되옵고  
錄籤山窓의 共把遺經 究終始 景 기엇다 ㅎ니잇고. <6곡>

“임금께서는 깊은 구중궁궐에 계시고 자신은 만 리나 떨어져 있으니, 임금께는 충성하는 것이 되고 백성에게는 혜택을 베풀 수 있는 10년 동안 초하여 두었던 기묘한 방책을 누구에게 시켜 임금께 여쭙어 알게 하리오.”라고하며 <2곡>에서 노래한 세상에 대한 화자의 불편한 심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선비가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되어서는 군주에게 충성함에 이르고 백성에게는 은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一屏一榻 左箴右銘 再唱  
神目如電이라 暗室을 欺心ㅎ며,  
天聽如雷라 私語인들 妄發ㅎ랴.

---

54) 송암은 科文에 뜻(志)을 두지 않고 산림에 묻혀 학문과 行道를 실천궁행한 실천적 처사의 전형으로 獨善山林하며 자족하는 自樂的 삶(손오규, 「<獨樂八曲>·<閑居十八曲>의 處士文學的 性格」, 『새얼어문논집』 6, 새얼어문학회, 1993, 308면)이나 宦路를 잇고 인의를 추구하며 마음의 自得을 얻어 그 뜻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김병국, 앞의 논문, 68면) 있지만, 화자가 이 장에서 자연과 동화된 경지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소요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결부(김기영, 앞의 논문, 135면)시킨 이면에는 자연의 동화된 모습을 형상화하여 ‘여민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戒愼恐懼를 隱微間에 닛디마세.

左如尸 儼若思 終日乾乾 夕惕若 訶는뜬든

尊事天君 訶고 攘除外累 訶야,

百體從令 五常不戮 訶야

治平事業을 다이루려 訶였더니

時也命也인디 迄無成功 歲不我與 訶니,

白首林泉의 訶을일이 다시업다.

우읍다 山之男 水之北에 斂藏蹤跡 訶야 百年閒老 景 기었다 訶니잇고. <7곡>

모두가 즐거워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실천방안을 자신과 결부시켜 노래하고 있다. ‘왼쪽에는 경계가 되는 말을 두고, 오른쪽에는 마음에 아로새긴 말을 둠(左箴右言)’과 ‘삼가고 두려워하기를 숨겨진 곳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고, 작고 가는 일보다 뚜렷해지는 것이 있음(戒愼恐懼 隱微間)’을 잊지 않고 실천구행하는 도적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치평사업(治平事業)<sup>55)</sup>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호문이 체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꼈기에 불평한 심사가 되어 ‘독락’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독락팔곡」이 대체로 한자어가 많이 쓰여서 도리어 한국시가적 향취를 잃어버린 실패작이고, 습작을 벗어나지 못한 미숙품<sup>56)</sup>이며, 산문에 가깝고 형식이 아주 산만한 작품으로 경기체가의 해체를 가져온 작품<sup>57)</sup>이라는 데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작자 자신과 결부시킨 자의(字意)와 형식에 주목하여 혹 이면의 뜻이 간과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권호문의 「독락팔곡」, 「가잠(家箴)」<sup>58)</sup> 등은 이연적의 「일강십목소」, 「진수팔규(進修八規)」, 「잠(箴)」 등과 사마광의 「독락원기」 등이 자못 닮아있기 때문이다.

55) <7곡>에서 五常인, ‘아비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아들은 효성을 다함(父義母慈兄友弟恭)’에 싫어함이 없이 잘 지켜지는 것을 말한다.

56) 김사엽,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학원사, 1962, 267면.

5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309-310면.

58) 「夫婦之道」·「父子之道」·「使奴婢」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權好文, 『松巖集』 卷6, 1-8면.(『叢刊』 41, 178-181면 참조)

### 3.3. 노계 박인로

박인로는 오랫동안 버르던 끝에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을 찾아가 이언적을 사모하는 심경과 주변경치를 가사 「독락당」에 읊고 있다. 이언적의 사후이지만 독락당을 방문한 것은 그가 추구하고자했던 이상사회, 곧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일부만 즐거워하는 세상이 된 것을 빗대어 당호를 ‘독락당’이라고 지었던 이유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박인로는 몰락한 향반으로서 세상에 정도가 통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변해 버린 현실에서의 체험으로 인하여 도리와 직분을 강조했던 유자(儒者) 이언적을 흠모하여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언적이 정계에서 활동하던 때와 강제로 귀양 가서도 내려놓지 않았던 일들인 ‘當時호시던 날’을 ‘다시곰 思想호’<sup>59)</sup>며 그를 기리며 가사 「독락당」을 지어 노래했던 것이다.

“聖賢書의 着意호야 功效를 일워내어, 繼往開來호야 吾道를 받키시니, 吾東方 樂只君子는 다든 인가 너기로라. 호믈며 孝悌를 本을 삼고 忠誠을 뱍혀 너여, 聖朝의 나아 들러 稷契의 몸이 되야, 唐虞盛時를 일월가 바라더가. 時運이 不幸호야 忠賢을 遠斥호니 듯느니 보느니 深山窮谷엔들 뉘 아니 悲感호리. 七年長沙의 不見天日호고, 閉門深省호샤 道德만 닷그시니, 四不勝正이라 公論이 절로 이러, 尊崇道德을 사람마다 홀 줄 아라, 江界는 謫所로디 遺化를 못느 이저, 窮巷絕域의 祠宇조차 식위시니” - 「독락당」 중에서-

‘독락당’에 올라 마치 이언적을 대면한 듯<sup>60)</sup> 그 풍채와 덕행을 추송하고, 독서소리가 이어졌던 서원의 변성함과 당우(唐虞)의 성시(盛時)를 이루려고

59) “獨樂堂 고쳐 올라 左右를 살펴보니, 先生風采을 친히 만나 뵈옵는 듯, 羹牆의 奄然호야 俯仰歎息호며, 當時호시던 날 다시곰 思想호니.” 朴仁老, 「獨樂堂」 『蘆溪集』 卷3, 13-17면.(『叢刊』 65, 250-252면)

60) “淸溪를 빗기 건너 釣磯도 宛然호샤, 白鷗들이 네 날을 아느산다. 猨子陵이 어너 히에 漢室로 가단 말고, 答深磯上에 모연만 좁겨서라.” 등의 구절은 마치 자신이 이언적이 된 듯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노력했던 직설(稷楔)같은 충신이었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강제로 귀양을 가게 되었음을 슬퍼하고 적소에서까지 끼친 감화를 남겨 선비들에게 추앙받았던 모습을 생각하며 감회를 술회하고 있다.

특히 박인로가 사상(思想)한 이언적이 당시 하시던 일 가운데 「일강십목소」의 ‘신용사(慎用舍)’, ‘순천도(順天道)’, ‘정인심(正人心)’ 등에 공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궁핍한 환경 때문에 선가자로서 노래했다기 보다는 유자로서 실천궁행하며 도덕적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嶺南 千里外에 壬辰變後 나쁜百姓 / 賊路 初頭에 어늬世業 가질넌고 / 遺墟 蕪沒호던 草屋數間 디어두고 / 陳荒 薄田을 가다 얼미 갈리넌고 / ㄱ듯 多事호던 賦役이나 적을넌가 / 朝夕도 못내이어 飢寒에 늘거신들 / 戀主 丹心이야 어늬 刻에 이즐넌고 (중략) 農桑을 勸호시며 軍政도 다그시니 / 男耕 女織에 萬民이 安業호고 / 弓矢 斯張호야 武備도 ㄱ갓는다” - 「영남가」<sup>61)</sup> 중에서-

이 노래는 가사 「영남가(嶺南歌)」의 일부로 박인로가 사상(思想)한 이언적이 추구하고자 했던 일 중에 ‘인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인심(正人心)’과 ‘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순천도(順天道)’를 노래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영남가」는 박인로가 도학에 심취하였던 만년에, 능란한 어휘구사로 선정을 베풀고 물러나는 영남감사 이기조(李基祚, 1595-1653)를 찬양<sup>62)</sup>한 노래이다.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다 먹을 수 없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들이지 않으면 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는 등 백성으로 하여금 산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송함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산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송함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sup>63)</sup>이라는 맹자의 말에 근거하고 있다.

61) 朴仁老, 「嶺南歌」 『蘆溪集』 卷3, 17-19면.(『叢刊』 65, 252-253면)

62) 가사 「영남가」는 이근원(李謹元, ?)의 덕치를 찬양하여 읊은 것이 아니라 이기조를 대상으로 찬양한 작품이다. 이종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권, 민족어문학회, 2009, 289-307면 참고.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풍년에는 일 년 내내 배 부르고, 흉년에는 사망(死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sup>64)</sup>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처자를 돌볼 수가 없어서, 풍년에는 일 년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겨를에 백성을 구제하느냐.’<sup>65)</sup>는 것이다.

또한 부역에 관한 ‘사상(思想)’ 또한 맹자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삼배와 실에 대한 세와 곡식에 대한 세와 힘으로 부역하는 세가 있으니 군자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쓰고, 두 가지는 늦춘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세 가지를 함께 쓰면 부자간도 이산’<sup>66)</sup>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부세를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수가 있는데 “배와 실은 여름에 취하고, 곡식은 가을에 취하며, 힘으로 부역함은 겨울에 취하여 각기 때에 맞게 해야 하는데 만약 한꺼번에 취한다면 백성의 힘이 감당해 내지 못함”<sup>67)</sup>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深仁 至德으로 惻怛흔 뜻을 두샤 / 巡相 閣下를 特別히 보내시니 / 嶺南 殘民이 再生秋 아니온가 / 白玉又치 물그시고 河海又치 汲흔뜻에 / 明德 新民을 一身에 일을삼아 / 九經 八目を 誠敬中에 부쳐 두고 / 稷契 皐陶 몸이 되야 / 致君 堯舜을 覩고야 말라 너겨 / 承流 宣化하야 養民홀 뜻을 두샤 / 七十州 一家 삼아 父母心을 가지시고 / 어미 일흠 모든 赤子 如保恩을 넘히시니 / 大旱에 百穀이 時雨를 만나는 닷 / 涸轍 枯漁 ] 汲픈 소애 잠겨는 듯 / 千千 萬萬家에 德化

63)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중략)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孟子』 「梁惠王·上」.

64) “明君 制民之產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世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孟子』 「梁惠王·上」.

65) “今也 制民之產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世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 治禮儀哉.” 『孟子』 「梁惠王·上」.

66)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一 緩其二 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 『孟子』 「盡心·下」.

67) “征賦之法 歲有常數 然布縷取之於夏 米粟取之於秋 力役取之於冬 當各以其時 若并取之則民力 有所不堪矣.” 『孟子』 「盡心·下」.

골오 미쳐시니 / 不世情東風이 흐릿츠로 부는듯다 (중략) 盡心 國事호야 忠誠을  
다호시며 / 學校 明倫을 政事中에 大本삼아 / 斯文 一事을 己任을 삼으시니 / 吾  
道幸甚이 時運이 아니온가 / 政治 이러커니 닐 아니 감격호리” - 「영남가」 중  
에서-

‘위민(爲民)에 뜻을 두고 백성을 구제하는 역할을 소홀하지 않는 인물을 등  
용해야한다’는 ‘신용사(慎用舍)’를 노래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군주는 어진 이를 등용하되 좌우의 신하가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허락  
하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백성 모  
두가 어질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어짊을 발견한 뒤에 등용해야한다. 그리  
고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사람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 뒤  
에 살펴보아서 불가한 점을 발견한 뒤에야 버려야 한다.”<sup>68)</sup>는 맹자의 말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 수공무위(殊功無爲)하여도 교화가 자연히 이루어져 송사가 없어지  
고 형벌이 줄어들어 백성이 즐거워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列邑 守畧이 相國의 法을 밧아 / 愛民 一心이 遠近업시 다긋호니 / 엇그제  
石壕村이 武陵桃源 되엇는가 / 竹院 松窓애 絃誦聲을 이어거늘 / 綠楊 亭畔애  
擊壤歌을 불러너니 / 無懷氏적 사람인가 葛天氏적 百姓인가 / 唐虞 盛時을 오늘  
다시 본듯호다 / 許多 好訟輩는 어드러로 다간게오 / 獄訟이 止息호니 囹圄空虛  
호단말가 / 民心이 感化호야 절노절노 그러토다 / 必也 使無訟을 千載下에 보아  
고야 / 公庭이 無事호니 村落도 일이업다” - 「영남가」 중에서-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백성들 또한 그 군주의 즐거움을 즐거  
워하고,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들 또한 그 군주를 근심하니, 즐  
거워하기를 온 천하로써 하며, 근심하기를 온 천하로써 해야 한다.”<sup>69)</sup>는 ‘순

---

68)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然後察之 見賢焉然後用之 左  
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然後 察之 見不可焉然後 去之.”  
『孟子』 「梁惠王·下」.

천도(順天道)'를 사상하며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인로(朴仁老, 1561~1642)는 17세기 전반기 최다 가사작가이나 선가자(善歌者)로서 지인들을 위해서라든가 지나친 유교적 이념만을 노래했다는 평가<sup>70)</sup>가 따른다. 왜란이후 향촌사회의 현실은 피폐하여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신분질서의 혼란과 경제적 난국은 박인로 개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외란 이후 당시 사회가 총체적으로 처해있었던 현실이었다. 지방에는 특권층이 있기는 했지만 일부에 국한되었다. 전반적으로 당시는 낙향하여 몰락한 양반들 대부분이 체통을 유지할 수 없었고 농사를 지어야 할 종들마저 이산되어서 빈궁한 생활이나마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sup>71)</sup>

박인로는 농지의 황폐화와 부역 등 생존과 밀접했던 향반으로서 현실 속에서의 체험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영남가」가 대상을 추송하는 형식을 통해 노래하였듯 이언적의 '독락당'을 찾아가 마치 그를 대면한 듯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유자로서 사상하고 신념에 공감하여 당호 '독락당'과 같은 제명(題名)의 가사를 지어 노래한 것이다.

#### 4. 결론

---

69)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孟子』 「梁惠王·下」.

70) 선가자로서 거유들과 교유하고 유흥의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창작했기에 어휘나 표현이 그의 작품에 반복되어 나타난다(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의 基盤과 文學的 指向 硏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4, 59-73면)거나 가난과 유력한 사족이 아니었기에 누구도 내켜하지 않은 유흥의 자리에 나섰을(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148면) 수도 있었겠지만, 정도가 아닌 편법이 필요한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세태를 반어적·해학적 표현(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 26-90면;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권, 한민족어문학회, 2013, 353-357면)을 통한 유자로서의 신념이 작품에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1) 황패강, 『임진왜란과 實記文學』, 일지사, 1994, 56-58면.

‘독락’은 맹자가 왕도정치를 말함에 있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 ‘중중락’ 등의 뜻과 구분 지었던 말이다. 이후 중국 북송의 사마광과 한국 조선조의 이언적, 권호문, 박인로 등 조선조 유학자들에게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 본고는 이들이 ‘독락’이라는 말을 쓴 데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마광은 30여 년간 정계에서 활동하다가 왕안석을 비롯한 신법당파와의 갈등 등으로 물러나 ‘독락원’을 조성하고 명사들과 교류하고 저술활동을 하면서 홀로 즐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독락원기」와 몇몇 시들을 통해서 전원에서 자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마광은 당시 정계를 집정한 신법당파가 관료의 집단화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귀족과 도시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중앙과 도시 위주의 한 비효율적인 관제와 군제, 지나친 제도개혁으로 인한 모순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는 모두 군주가 인물의 능부(能否)를 헤아려 관직에 임용하고 그 수행의 업적을 살펴 진퇴시키는 인재등용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등용된 인물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직분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특권층 일부만이 즐거워하는 세상이 된 것이라며 이를 빗대어 ‘독락’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조선조의 유자들에게도 ‘독락’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이언적, 권호문, 박인로의 작품과 기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언적은 훈구세력인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였다가 파직되어 물러나 부친의 정자를 신축하여 당호를 ‘독락당’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후 유교의 여러 경전과 송대 도학자들의 설을 궁구하여 인(仁)의 실현방법을 모색하였고, 치세의 근본대책으로 군주를 성학(聖學)의 세계로 이끌어 왕정을 바로잡아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등용의 신중함 등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안정되니 인명을 중시하여 형벌을 줄이고 부세를 경감하여 도탄

에 빠진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언적은 이러한 세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빗대어 ‘독락’이라고 표현하였다.

권호문은 「독락팔곡병서」에 밝혔듯이 「독락팔곡」에 그의 불평한 심사를 자신과 결부시켜 ‘독락’의 뜻을 노래하였다. 그는 군주가 인의를 바탕으로 특권층 일부만 즐거워하는 독락이 아닌 천지만물이 조화롭듯 군주를 보필하고 위민에 힘쓰는 인물을 등용하여 치평사업(治平事業)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독락’이라고 하였다.

박인로는 당시 생존과 밀접했던 향반으로서의 체험과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도리와 직분을 강조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자 했던 유자 이언적을 흠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언적의 사후지만 ‘독락당’을 찾아가 ‘당시 흐시던 날’을 ‘다시곰 思想하’며 그를 추송하는 형식으로 「독락당」을 노래하였다. 가사 「독락당」은 백성의 생업체정, 부세징수의 감면, 인재등용 등 군주의 역할을 유자로서 노래하였다. 이는 지인들을 위해 서라든가 지나친 유교적 이념만을 선가자로서보다는 실천도학을 지향하고자 했던 유자로서의 신념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본고는 이상에서 ‘독락’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인물들에게서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벗삼아 성정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홀로 즐기며 자득하고자 했던 모습이 표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민락’의 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과 인을 바탕으로 한 ‘여민락’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왕도정치의 실현을 촉구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ABSTRACT]

Meaning of ‘dokrak(獨樂)’ in Korean literature  
-Focusing on Lee Eon-jeok, Kwon Ho-mun and Park In-ro in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studies the meaning of ‘dokrak(獨樂)’ through the records and literary works of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Lee Eon-jeok, Kwon Ho-mun and Park In-ro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Sima Guang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After retiring from politics, Sima Guang built the ‘Garden of Solitary Enjoyment(Dule yuan 獨樂園)’ and wrote an essay devoted to this garden(「Dule yuan ji 獨樂園記」) to cultivate his mind and pursue solitary enjoyment in harmony with the nature. However, his poem also reveals his ideals of ‘yeominrak(與民樂)’, meaning enjoyment with the people, and criticism of the reality.

Lee Eon-jeok, a scholar of Joseon Dynasty, renovated his father’s pavilion and named it ‘Dokrak-dang(獨樂堂).’ Kwon Ho-mun wrote 「Dokrakpalgok(獨樂八曲)」 to describe his state of mind. Park In-ro visited ‘Dokrak-dang’ after the death of Lee Eon-jeok and honored him with a gasa(traditional Korean verse), 「Dokrakdang」 by “thinking about what he had done there during his lifetime.” His work embodies his beliefs as a Confucian scholar, rather than as a writer. The word, ‘dokrak(獨樂),’ which was used by the scholars described above, seems to describe the pursuit of solitary enjoyment by devoting themselves to learning and cultivating mind in harmony with the nature. However, it also embodies their ideals of ‘yeominrak(與民樂)’ based on criticism of the reality.

Key words : dokrak(獨樂), Sima Guang(司馬光), Lee Eon-jeok(李彥迪), Park In-ro(朴仁老), Dokrak-dang(獨樂堂), Dokrakpalgok(獨樂八曲), yeominrak(meaning enjoyment with the people, and criticism of the reality)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權 近, 『陽村集』 卷13, 9-11면.(『叢刊』 7, 146-147면)  
權好文, 『松巖集』 卷6, 1-2면.(『叢刊』 41, 289면)  
權好文, 『松巖續集』 卷6, 1-8면.(『叢刊』 41, 178-181면)  
南秀文, 『敬齋遺稿』 卷1, 12-14면.(『叢刊』 9, 46면)  
朴仁老, 『蘆溪集』 卷3, 13-19면.(『叢刊』 65, 250-253면)  
朴趾源, 『燕巖集』 卷1.(『叢刊』 252, 22-23면)  
魏伯珪, 『存齋集』 卷9, 1-14면.(『韓國文集叢刊』 243, 182-188면)  
魏伯珪, 『存齋集』 卷9, 『叢刊』 24, 182면.  
李承召, 『三灘集』 권4, 『叢刊』 11, 407-416면.  
李承召, 『三灘集』 권6, 『叢刊』 11, 432면.  
李彦迪, 『晦齋先生年譜』, 1-20면.(『叢刊』 24, 487-496면)  
李彦迪, 『晦齋集』 卷1, 8-11면.(『叢刊』 24, 355-357면)  
李彦迪, 『晦齋集』 卷2, 3-10면.(『叢刊』 24, 363-366면)  
李彦迪, 『晦齋集』 卷3, 4-13면.(『叢刊』 24, 371-376면)  
李彦迪, 『晦齋集』 卷7, 1-29면.(『叢刊』 24, 417-431면)  
李彦迪, 『晦齋集』 卷13, 11-13면.(『叢刊』 24, 478-479면)  
張顯光, 『旅軒集』 卷1, 『叢刊』 60, 12-15면.  
『孟子』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 66-89, 696-697면.  
司馬光 撰·李之亮 箋註, 『司馬溫公集編年箋註』 2, 巴蜀書社, 2008, 297-336면.  
司馬光 撰·李之亮 箋註, 『司馬溫公集編年箋註』 5, 巴蜀書社, 2008, 204면.

### □ 단행본

- 김사엽,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학원사, 1962, 267면.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 26-90면.  
김학주, 『中國文學史』, 新雅社, 1993, 339-400면.  
이임수, 『한국시가문학사』, 보고사, 2014, 212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309-310면.  
장도규, 『晦齋李彦迪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9, 154-155면.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出版部, 1986, 53면.  
황쾌강, 『임진왜란과 實記文學』, 일지사, 1994, 56-58면.

武内義雄 著·李東熙 譯, 『中國思想史』, 여강출판사, 1992, 199-202면.  
松丸道雄 外著·조성을 譯, 『중국사개설』, 도서출판 한울, 1991, 242-256면.

#### □ 논문

- 권용옥, 「晦齋 李彦迪과 良洞마을」, 『儒學研究』 26, 충남대유학연구소, 2012, 6면.
- 김기영, 「松巖 權好文의 <獨樂八曲> 研究」, 『어문연구』 25권, 어문연구학회, 1994, 53, 135면.
- 김병국, 「松巖 權好文의 <독락팔곡(獨樂八曲)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68면.
-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권, 한민족어문학회, 2013, 353-357면.
- 박학래, 「旅軒 張顯光의 시대인식과 經世論」, 『유교사상문화연구』 22, 한국유교학회, 2005, 223-229면.
-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48면.
- 손요규, 「<獨樂八曲>-<閑居十八曲>의 處士文學의 性格」, 『새얼어문논집』 6권, 새얼어문학회, 1993, 308면.
- 오현필, 「司馬光의 洛陽 隱逸時期 詩 研究」, 『中國學論叢』 41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2013, 85-88면.
- 오현필,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 『中國學論叢』 39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2013, 111면.
- 이영덕, 「司馬光의 社會觀과 그 背景」, 『史林』 2집, 수선사학회, 1977, 388면.
- 이중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권, 민족어문학회, 2009, 289-307면.
- 최병덕, 「旅軒 張顯光의 군주론」, 『한국학논집』 42, 계명대한국학연구원, 2011, 178-203면.
- 최재남, 「<독락팔곡>과 <한거십팔곡>의 정서적 연관」, 『한국문학논총』 16집, 한국문학회, 1995, 331-339면.
- 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의 基盤과 文學의 指向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59-73면.

이 논문은 2016년 03월 14일 접수되어 04월 11일까지 심사받아 04월 26일 게재 확정됨.